

화순군, 서울 공공기숙사 입사생 모집



서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화순군이 서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에 입사할 대학생과 대학원생 10명을 모집한다.

입사 신청·접수 기간은 9일부터 18일까지다.

공고일(2월 9일) 기준 부모 또는 보

서울시와 협약 맺고 올해부터 기숙사 운영 대학·대학원생 10명 18일까지 신청·접수

호자가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의 재학생, 대학원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은 올해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맺고 서울시와 지자체들이 공동 운영 하는 공공기숙사 운영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화순 출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5호 10실(가칭 화순학사)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수도권에 진학한 화순 출신 대

학생과 대학원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기숙사 운영에 참여했다.

입사생의 기숙사 부담금은 월 12만원(식비 별도)이고, 1인 1실에서 생활할 수 있어 사생활이 보장된다. 입사 기간은 입사한 해의 연말까지다.

공공기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내발산동)에 있고 체육 단련실, 도서실, 컴퓨터실, 게스트 하우스 등 공동 공간도 갖추고 있다.

입사 신청서는 화순군 총무과 평생교육팀(061-379-3353)에 우편이나 e 메일(hsy060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http://www.hwasun.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순군 총무과 평생교육팀(061-379-3353)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숙사와 서울 주요 대학의 거리가 지하철로 1시간 이내 거리여서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며 “가칭 ‘화순학사’는 남도학과와 함께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업체 선정 곡성농협·육과농협, 34개교 대상 총 6억7천만원 규모 공급

곡성군이 학교급식 지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곡성농협과 육과농협을 2021년도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올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34개교를 대상으로 총 6억 7천만 원 규모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곡성군 소통마루에서 진행된 심의 회의에는 곡성군의회, 교육지원청, 학부모 대표, 급식단체, 생산자 대표 등 수

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심의결과 쌀 공급업체로는 곡성농협, 부식 공급업체로는 육과농협이 선정됐다. 또한 심의회는 친환경 축·수산물, 유기농 식품,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30% 이내 공급을 허용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품목을 확대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곡성=양해영기자



장성군,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한다

입식테이블 설치부터 시설 개·보수까지

장성군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지역 내 위생업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주다. 대상에 선정되면 ▲저온저장고 설치 ▲노후된 조리장 및 환기시설 개·보수 ▲건물 내·외벽 개·보수 및 구조 변경 ▲입식테이블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비의 50%(1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말 차단용 테이블 칸막이 설치 지원이 추가됐다.

군 관계자는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객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이달 26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장성군 환경위생과 위생팀(061-390-7314) 또는 장성군외식업지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농업인대학 교육생 모집

소득작목 재배기술·마케팅기술 등 구성...24일까지 총 40명 선발



구례군이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구례군 농업인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과정은 선도농업 인재양성반 1개반으로 총 40명을 2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정원보다 많이 신청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재배 기술,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법률, 온라인 마케팅 기술 등으로 농업인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총27회 106시간로 진행될 계획이며 후반기에는 휴강한다.

전체 교육시간 70% 이상 출석자에게 수료자격이 주어진다. 졸업시 때는

모범이 되는 교육생 3명을 선발하여 대학장인 구례군수 표창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례군청 또는 구례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지된 '2021년도 구례군농업인대학 교육생 모집' 요강의 신청서류를 구비해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식은 모집요강에 포함된 선정방식 기준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061-780-207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코로나19로 농업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지역 선도농업인을 양성할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농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여준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 농업인대학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약 53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친환경농업도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군복지재단, 외국인 근로자 '따뜻한 겨울나기' 동내의 지원

농촌 일손부족 해소 위해 채용

담양군복지재단(이사장 강성남)은 최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283명에게 동내의 (62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채용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번 지원을 통해 추위진 날씨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강성남 이사장은 “번 타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달받은 내복으

로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겨울을 났으면 하는 바램에서 내복을 준비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시, 모든 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1월 26일 기준 관내 주소지 둔 모든 시민 대상 ... 다음달 2일부터 신청

나주시가 코로나19로 체질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 제정과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달 2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지역 자급의 역외 유출 방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나주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던 지난 1월 26일을 기준해 나주시 관내 주소지 둔 모든 시민(결혼이민자 포함)이다.

3월 2일부터 19일까지(18일 간) 세대주(대리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 상품권 수령증을 교부받아 지정된 지역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내 업무 혼잡과 시민 편의를 감안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각각 방문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자 출입 시 발열체크, 손소독과 더불어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